

완벽 테크니션들이 ‘피카소 신화’ 새로 쓴다

피카소정보통신 김동연 대표

파블로 피카소, 교황이나 총리의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나 안다. 청색시대에서 입체파 시대와 초현실주의 시대를 거치며 변화무쌍한 작품세계를 보여준 전설적 화가로 칭송받지만 무엇보다도 피카소는 이미 10대에 스페인의 미술학교에서 더 배울 것이 없었던 완벽한 테크닉 마스터였다. 숙련된 기술이라는 기본이 없으면 위대한 창조도 없다는 것을 그만큼 설득력 있게 보여준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러한 점이 피카소정보통신 김동연 대표(39)에게 와 닿았던 걸까? 완벽한 기술력을 강조하는 김 대표에게 피카소라는 이름은 위대한 테크니션의 다른 이름이었던 모양이다. 피카소의 신화가 모든 재능과 노력을 쏟아 부으며 도전을 거듭한 인간적 고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피카소정보통신의 성장 신화 역시 완벽한 기술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들의 가감 없는 총합이었을 뿐이었다.

‘고난의 8개월’ 넘기며 증권업체로 성장

피카소정보통신은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전문기업이다. 1999년 설립 이후 DVR이라는 한 분야만 집중하면서 지난해만 매출 188억원을 올

PICASO

렸다. 채 5년이 되지 않아 선발업체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피카소정보통신에 대해 IT업계는 뜨거운 관심을 집중했다. 지난 6월 <벤처코리아2003>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올해의 정보통신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했고, 코스닥 등록으로 역대 최대의 공모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컴퓨터 관련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DVR 기술에 대해 정보를 듣고는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디스 같은 회사에서 막 생산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왕 늦은 거 기술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완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칩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하게 될 정도가 되었지만, 사업초기만 해도 부딪쳐야만 했던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완성품을 만들어 낼 만큼 역량을 쌓았을 때는 개인사업으로 번 돈이 모두 들어간 상황이었다. 다행히 미국의 일류 보안회사인 펠코사에 DVR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짓는 듯 했지만,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펠코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술요건을 완벽하게 통과해야 했다. 게다가 그들은 미국 보편협회(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UL), 유럽연합(CE) 등의 인증을 함께 요구해 왔다. 개발 위주의 작은 회사로서는 힘에 부치는 미션임에 틀림없었다. 김 대표는 그 시기를 ‘고난의 8개월’로 부른다.

“낙담할 시간도 없었던 거 같아요. 낙하실험을 반복하면서 완제품 수 십대를 날려야 했고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했었어요. 막판엔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해야 했으니 마음도 무거웠구요.”


선적날짜가 잡혔을 때는 전직원들의 친구뿐만 아니라 애인까지

불러서 밤을 새웠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2001년 3월 3가지 해외 인증을 모두 획득했고, 한 달 뒤인 4월 피카소는 펠코에 632대의 제품을 처음으로 선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발인력 생산인력 할 것 없이 8개월을 함께 고생한 경험이야말로 피카소정보통신의 가장 큰 자산이자 저력이 되었다. 투철한 동료의식과 인재 관리가 어느 정도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피카소정보통신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투철한 동료의식과 애사심이 최대강점

몇 달 전 피카소정보통신은 3년간 세 들었던 분당 테크노파크에서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썬택시티로 입주했다. 성남시의 벤처밸리에서 최첨단 시설로 돋보이는 사옥을 마련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었던 수출라인을 다변화시키고 국내에도 영업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3명에 불과했던 영업인력을 14명으로 늘렸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김 대표를 비롯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원 스무 명의 절반이 공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술 위주 벤처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사 박사 출신은 한 명도 없지만 기술력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학력과 기술력은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에서 닦은 기술독창성이 더욱 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평범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실을 실제로 피카소 정보통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점은 평범한 사실로 기억되기 어려울 것 같다. 대저 역사란 그런 ‘놀라운 예외’들의 발자국으로 점철된 것 아니었던가. 

● CEO와 함께 ●



피카소정보통신의 경영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얼마 전 김 대표와 경영진은 주식 10만 주를 조합에 주당 10원에 제공했다. 이미 주식을 배당받았던 창립팀

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사원들까지 빠짐없이 돌아간 혜택이었다.

“글쎄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0억이든, 100억이든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나도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열심히 일하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오죽 좋습니까.”